

'전북형 Physical AI 클러스터'는 글로벌 선도모델

전북백년포럼 제37강,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송세경 회장 초청 강연... 'AX 혁명' 핵심 인사이트 공유

전북은 특수목적기계, 농기계, 건설기계 등 AX 기반 산업의 집적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북형 Physical AI 클러스터'는 글로벌 선도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9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 백년포럼' 제37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는 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orean Gen AI Foundation: KGAF) 회장이 연사로 나서, 'AX 혁명을 촉발한 초거대 인공지능(LLM, GPT) 딥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송 회장은 이날 디지털 대전환과 물리 세계로의 AI 진출이 가속화되는 시대, 초거대 인공지능이 가져올 'AX 혁명(AI Transformation: AI를 중심으로

기업의 업무, 조직, 문화 등을 재설계하는 혁명)'의 핵심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강연은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를 넘어선 문명사적 전환, 즉 AI에서 AX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집중 조명하였다. 특히 GPT-5와 같은 최신 초거대 AI가 산업, 노동, 교육, 정책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AI 진화의 5단계(AI → GenAI → AI Agents(GPTs) → Agentic AI → Physical AI → 궁극 목표 AGI)를 중심으로 기술적 전개와 사회적 함의를 설명하였다.

송 회장은 "AI의 진화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과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는 문명적 전환"이라며, 앞으로는 전통적인 '일자리'

는 사라지고 '문제(Problem)'와 '일(Task)'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슬라 Optimus와 Figure AI Helix 사례를 통해 Gen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의 물리 세계 적용 가능성과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생태계의 확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 과제를 ΔAX Team Korea 구축(정부·산업·학계 연합체), ΔKing Pin 프로젝트(제조·로봇·AI 융합 애플리케이션 육성), Δ전북 Physical AI 클러스터(건설기계·조선·농기계 특화 글로벌 테스트베드)라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전북형 Physical AI 클러스터'는 글로벌 선도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협업지능 Physical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고, '피지컬 AI 실증·연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북연구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로봇, 제조혁신이 융합되는 AX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전북자치도 협동조합 대상(大賞)'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공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 고령농·소농 안정적 판로 구축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협동조합 대상(大賞)'으로 '군산시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협동조합 대상(大賞)은 공동체 가치 실현, 비전, 사업성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도내외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수상 단체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에 선정된 '군산시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이사장 김한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케어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오동은)'은 익산 지역 로컬푸드 매장을 기반으로, 소외된 고령농과 소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며 협동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낸 점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북도에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일반협동조합 1,625개소 △사회적협동조합 378개소 △협동조합연합회 3개소 등 총 2,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활동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협동조합 대상(大賞) 수상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협동의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협동조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선도사례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시·군, 도청서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홍보전 나서

23일까지 13개 시군 릴레이 홍보로 도내 고향사랑기부 분위기 확산... 각 지역 대표 답례품 전시와 시식·시음 행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함께 도청에서 릴레이 홍보전에 나섰다.

도는 9일부터 23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을 열고, 각 지역 대표 답례품 전시와 시식·시음 행사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홍보전은 정읍·남원을 시작으로 군산, 장수·순창, 김제, 진안, 전주·원주, 고창·부안, 무주, 임실 등 13개 시·군이 차례로 참여한다.

각 지역은 특색 있는 답례품과 함께 기부제도를 홍보하고, 도청 직원과 민원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이 열린 가운데, 각 지역 대표 답례품 전시와 시식·시음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동시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

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되어 기부자는 혜택과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84억7,000만원을 모금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약 93억원을 모금하며 2년 연속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 대규모 광역시와 생활권을 공유하지 않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거둔 성과와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릴레이 홍보전은 도청 직원과 민원인들이 자연스럽게 제도를 접하고, 답례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기부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내 고향과 이웃을 키워가는 상생의 지지"라며 "이번 도청 홍보전이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공감하는 장이 되고, 더 나아가 전북 지역 곳곳에 기부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 계란값 안정·농가 부담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가 9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2027년 9월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산란계협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

부는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도록 했다.

개정 이후 새로 지은 농장은 즉시 적용을 받았으나, 기존 농가는 7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9월까지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농가의 적용 시점은 2027년 9월로 다시 조정된다.

전북도는 유예기간 동안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추진한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동안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가격고시제는 9월 말 폐지된다.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1회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발간해 시장 가격 전

망을 제공한다.

농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는 산란계 농가가 축사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별로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중·소규모 농가는 FTA기금과 이차보전을 활용해 최대 5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가는 최대 13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용자 조건은 5년 차지 10년 분할상환 방식방식이다. 적용 이자율은 FTA기금 1%, 이차보전 2%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예초기·벌쏘임·뱀물림 사고 주의 당부

최근 3년간 예초기 사고 46건... 절반이 추석 전후 8~9월 집중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작업을 준비하는 도민들에게 예초기 사용 주의와 함께 벌쏘임, 뱀물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초기 사고로 인한 구급출동은 총 4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인 23건이 추석 전후인 8월과 9월에 집중됐다.

특히 이 시기는 벌초와 제초 작업이 겹쳐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예초기 사용 전 보호장비 착용과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 중에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초기 사고뿐만 아니라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도 벌초철에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벌쏘임 환자는 2022년 664건, 2023년 443건, 2024년 56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월에만 416건이 집중됐다.

뱀물림 사고 역시 같은 기간 2022년 51건, 2023년 65건, 2024년 47건이 발생했고, 주로 여름철과 추석 전후에 집중됐다.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벌초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초기 사고, 벌쏘임, 뱀물림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예초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비(보호 안경, 장갑,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사용 전 기계를 점검하며, 작업 중에는 주변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로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풀숲을 지날 때는 뱀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미리 확인하고, 어두운 색상의 옷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는 활동을 멈추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채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예초기 사고뿐만 아니라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 건설인·사회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신속 추진” 한목소리

전북의 건설인들과 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건설단연 “도민의 간절한 숙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먼저,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9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라며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를 비롯해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축사, 소방시설, 전기·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10개 건설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연합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06년 김제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표류하던 전북권 공항 건설 사업은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비로소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절차적 검토로 지체돼 왔다”고 목소



①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9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②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 공항의 신속 착공과 개발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특히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거론하며 “오는 9월 11일 법원 판결에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24년 정부가 실시한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며 “2006년 대법원 조차 새만금 매립면허에 적법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도 불필요한 논쟁이 국내외에서 계속 확산되는 것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군산공항 서쪽 1.35km 지점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8,077억원으로, 국비 5,610억원과 한국공항공사 부담금 2,467억원으로 총당된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활주로 1본(2,500m), 여객기 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 1만5,000㎡ 규모의 여객·화물터미널, 696명의 주차장 등 국제공항으로서 기본적 기능을 갖출게 된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각종 교통·재해 영향평가도 이미 협의가 완료됐다.

환경영향평가 본인은 보완 과정을

“도민의 오랜 숙원... 흔들림 없어야”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거쳐 지난 8월 재제출 했으며, 이날 안에 최종 협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오는 11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건설단연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이제 정부와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상징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 결실을 맺으려면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며, 개항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전북 도내 209개 경제·사회·체육·문화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신속히 착공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 정부와 국민을 향해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1일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열려 긴장감을 더했다. 추진연합은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이 일부 환경단체의 반박적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2029년 개항 목표를 흔들림 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연합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이 50년 넘게 겪어온 항공 오지의 설움을 끝내고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며, “이미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과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만큼 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한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무시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추진연합과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신속한 착공과 개발규모 확대 △안전적 예산 반영 △무분별한 반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3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성근 기자